

**국외출장보고서**  
**2022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**  
**해외연구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**

2022. 12.



**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**  
Korean Institute of  
Criminology and Justice

## 목 차

-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..... 1
-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..... 3
- 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..... 15

#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

## □ 개 요

- (방문목적)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연구기관 등을 현지 방문하여 국제협력 관계발전 및 교류,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,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
- (방문기간) 2022 11. 14.(월) ~ 11. 22.(화) (7박9일)
- (방문국가) B그룹(호주)
- (방문기관)

| 구분          | 방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호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B그룹<br>(호주) | ① 라이드시 의회 (Council of the City of Ryde)<br>② 호주연구위원회 (Australian Research Council)<br>③ 경제평화연구소 (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) |

- (참여대상) 총 23명
  - 연구회 및 연구기관 : 2019년도~2021년도 우수 직원

## □ 주요 활동사항

- (사전조사)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
  - 기관 방문 전에 사전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전달
- (주요활동) 선진(연구)기관을 방문하여 국제협력 관계 발전 및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구기관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(약2시간 내외)
- (후속조치) 방문한 기관에 대하여 사전질의 내용 및 토론 중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확산

## □ 주요일정(안)

| 일자                  | 국가         | 일 정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1.14.(월)<br><1일 차> | 인 천<br>시드니 | ① [출국] 인천 → 시드니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 |
| 11.15.(화)<br><2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사전점검회의] 방문단 사전모임 등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이동] 숙소 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16.(수)<br><3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기관방문1] 라이드 시 의회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중간점검회의1]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③ [이동] 숙소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17.(목)<br><4일 차> | 캔버라        | ① [이동] 시드니 → 캔버라 (약 3시간)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기관방문2] 호주연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③ [중간점검회의2]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④ [이동] 캔버라 → 시드니(약 3시간), 숙소 이동 및 휴식      | 버스 |
| 11.18.(금)<br><5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기관방문3] 경제평화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중간점검회의3]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③ [이동] 숙소 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19.(토)<br><6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중간점검회의4]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 및 논의 등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이동] 숙소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20.(일)<br><7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최종점검회의1]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등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이동] 숙소 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21.(월)<br><8일 차> | 시드니        | ① [최종점검회의2]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등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② [이동] 숙소 이동 및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 |
| 11.22.(화)<br><9일 차> | 시드니<br>인 천 | ① [입국]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 |

##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

- 
- ① 라이드시 의회 (Council of the City of Ryde)
  - ② 호주연구위원회 (Australian Research Council)
  - ③ 경제평화연구소 (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)
-

## 1. 방문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2. 11. 16.(수) 10:30, 시드니, 라이드 시의회
- 참석자
  - 방문단 : 조장호 단장 외 22명
  - 라이드 시의회 : Wayne Rylands(Chief Executive Officer), Penny Pedersen(councillor), Bernard Purcell(councillor), 송강호 의원(councillor)

## 2. 기관개요

- 설립연도 : 1867년 (자치 법에 따라 설립)
- 위치 : 호주 시드니(1 Pope Street, Ryde NSW 2112)
- 설립목적 : 지방 정부 영역의 전략, 계획, 정책, 규정 및 서비스 제공

## 3. 주요내용

### □ 주요 강연내용(강연자, Wayne Rylands)

- 라이드 시는 2021년 호주 전역의 지자체 선거에서 시의원 총 12명 중 한국계 후보 2명이 동시에 당선된 최초 사례의 도시로써, 국토, 도시, 환경 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개발을 추진하는 대표적 도시임
-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, 주차문제, 공원관리, 생활 편의시설 관리, 쓰레기 및 재활용, 도서관, 수영장, 환경문제 등이며 단기간 개발이 아닌, 100년의 장기목표를 세워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, 그에 알맞은 사무국 구조와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음
- 동시에, 호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면 자연증가(호주국민의 출산에 따른 증가)가 아닌 이민을 통해서 증가되는 인원분포가 더 많고 그에 따라서 이민자가 어느 국가에서 오는가의 분포에 따라 시의 운영 계획도 수정이 되고 있음

- 현재 이와 관련하여 서부지역에 신공항 개설 및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교통수단을 개발 진행 중. 현재 일부 사용 중인 자동운행 트램 외에 드론비행기, 무인버스 등을 준비 중. 교통수단의 연결 외에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부터 도착지까지의 수단(자전거, 스쿠터 등)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음.

## □ 질의응답

- 라이드 시는 호주에서도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, 인종간, 문화간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한 대표적 도시로 알려져있는데,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함.
- 시와 다양한 라이드 커뮤니티는 더 이상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통합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음
- 라이드 시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고, 생활환경에 많은 다민족이 섞이면서 살고 있음.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지역은 호주 백인들의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임.
- 지역의 주민들이 73개 국가에서 온 인종으로 섞여있으며, 그중 약50% 정도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음. 그래서 화합하고 융합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.
-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다민족적인 행사를 개최함. 그중에 하나의 예시로 최근 문페스티벌 그러니까 추석 대축제를 열었음. 그리고 이렇게 다민족적인 문화 축제를 할 때 아시아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살고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임. 그래서 전 세계를 가지 않고서도 이 라이드 시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.
-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은 그랜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다문화 페스티벌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두었음. 그 기금을 지역사회에서 와서 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참고로, 라이드시는 크게 5개의 문화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정기적으로 그룹간 라운드테이블을 조성하여 다문화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상호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임을 추진하고 있음

- 대한민국의 경우,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, 라이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함(한국의 경우 KDI, 행정연 등에서 갈등 관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을 공유)
-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 개발이 계속 되고 있지만 개발과 자연 환경의 유지만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
- 그 갈등이 원래의 자연적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계속 발생하는데 개인의 공간(private land)은 제한을 두기 어렵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(public land)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따라 개발과 환경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중임
- 이러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한국의 싱크탱크(건축도시공간연구소, 국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환경연구원)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며, 기관 소개, 주요 연구사례 공유 및 주요 담당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함(한국측 답변완료)
- 최근 언론을 통해서 코리아타운을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경과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
- 현재 우선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은 명칭에 대한 부분임. 코리아 타운이라고 지정하게 된다면 단순 비즈니스 구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님. 현재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며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전략적 타운센터라고 지정하고 있음.
- 향후 2~30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는 더 많은 한국 분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주거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와 주거가 융합되는 그런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.
- 현재 시의원 중에 한국계 의원이 두 명이고 한 시에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큰 이슈임.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. 현 시의원의 남은 임기인 3년 내에 코리아타운에 대한 진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임.

〈라이드 시의회(Ryde Council) 방문사진〉



## 2 호주연구위원회(Australian Research Council)

### 1. 방문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2. 11. 17.(목) 11:00, 시드니, 호주연구위원회
- 참석자
  - 방문단 : 조장호 단장 외 22명
  - 호주연구위원회 : Justin Withers(Director of Policy and Integrity), Oona O' Gorman-Douglas(Assistant Director, Policy and Integrity)

### 2. 기관개요

- 설립연도 : 2001년(호주 정부 내의 영연방 기관으로 2001년 호주 연구 위원회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설립, 연방교육부장관에게 보고)
- 위치 : 호주 캔버라(11 Lancaster Place Canberra Airport 2609)
- 설립목적 : 최고 품질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의 품질, 참여 및 영향을 평가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지식과 혁신을 성장시키고자 함
- 주요기능 : 연구 수월성, 교육, NCGP(국가경쟁보조금프로그램) 운영으로 연구의 질, 참여방법, 효과 등을 미션에 기반하여 재정지원부터 결과 점검까지 관리 및 운영

### 3. 주요내용

#### ☐ 주요 강연내용(강연자, Justin Withers)

- 호주연구위원회(이하 “ARC”)는 2001년 호주 연구 재단법(Australian Research Council Act 2001)에 의해 설립되어, 호주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
- 호주정부 Department of Innovation, Industry, Science and Research 소속으로, 2020~2021년도 국가재정지원 R&D 부문(전체 120억불)의 6.7%(8억불)를 ARC에 지원하고 있음
- R&D 재정투입의 중점분야는 산업, 교육, 의료 순이며, 현재 호주 43개 대학(호주국립대, 모나쉬대 등)이 ARC를 통해 연구예산을 확보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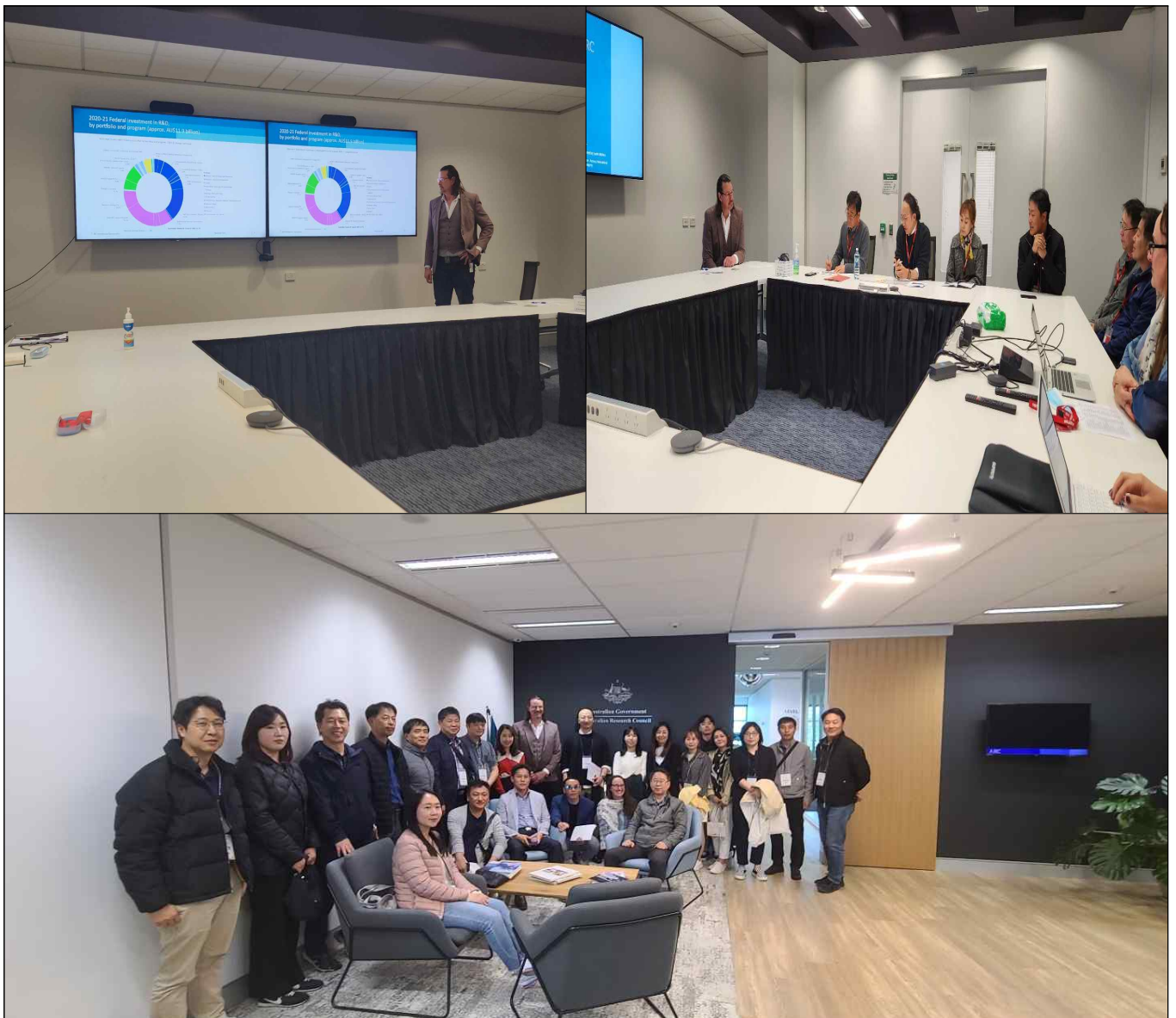
- 또한, 학술연구 과제 운영과 우수 연구센터 선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
-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: 개인연구자들과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
- 링키지 프로그램 : 연구자와 산업, 정부, 커뮤니티, 국제적 커뮤니티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- 링키지 인프라 장치와 설비프로그램 : 대학들이 과학과 인문학에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위해 적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
- 우수연구센터 프로그램 : 대규모 연구를 구축하고 주요연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집중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

## □ 질의응답

-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ARC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?
- ARC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구참여 타겟 연령대, 참여 대상, 기관 등 세분화된 카테고리에 의해 운영되며,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도 있음.
- 이처럼, 기준이 명확하고 수월성 높은 프로그램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의 연구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.
- 또한, 호주 정부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(Centres of Excellence, SRIs 등)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판단함.
- ARC의 경우 다양한 연구지원을 추진하는 등 우수인력을 어떻게 유치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?
- ARC는 현재 11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으로서 현재까지 별도의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음
- 다만, 직원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과 연금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

- ARC의 연구성과물을 홍보하는 노하우 및 향후 ARC의 미션과 과제는?
- ARC의 경우 ARC Data Portal을 통해 기관에서 발간된 결과물을 홍보하고 있음(이에, 한국측은 경제·인문사회분야 국가정책연구포털인 NKIS에 대해 상호 공유함)
- 향후, ARC 신임원장은 향후 7년(2030년까지)의 신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3대 미션(World Class advice and engagement, Research system excellence, Empowered people)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# 〈호주연구위원회(ARC) 방문사진〉



## 1. 방문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2. 11. 18.(금) 10:00, 시드니, 경제평화연구소
- 참석자
  - 방문단 : 조장호 단장 외 22명
  - 호주연구위원회 : Steve Killelea(Founder & Executive Chairman), Darren Lewis(Global Marketing & Communication Director)

## 2. 기관개요

- 설립연도 : 2007년(IT기업가이자 자선가인 Steve Killelea에 의해 설립)
- 위치 : 호주 시드니(Floor 4/205 Pacific Hwy, St Leonards NSW 2065)
- 설립목적 : 평화 관련 데이터 연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웰빙과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하고, 평화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
- 주요기능 : 세계평화지수(GPI), 긍정적 평화보고서(PPR), 평화의 경제적 가치(EVP)와 같은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, 학술기관, 씽크탱크, OECD, 세계은행, UN 등 관련 기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

## 3. 주요내용

### □ 주요 강연내용(강연자, Steve Killelea)

- 경제평화연구소(이하 “IEC”)는 2007년 IT기업가이자 자선가인 Steve Killele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, 지난 13년 동안 세계 안보, 국방, 테러 및 개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
-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, 세계 6개국에 지사\*를 두고 있음
  - \* 미국(뉴욕), 벨기에(브뤼셀), 짐바브웨(하라레), 멕시코(멕시코시티), 네덜란드(헤이그)
- IEP는 평화를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며, 평화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, 제공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이해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- 세계평화지수(GPI)는 세계의 상대적 평화에 대한 객관적 척도로 평화 수준에 따라 162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이에 대한 근거 데이터(23개 지표)를 제공함
- 세계평화지수(GPI) 뿐만 아니라, 세계테러지수(GTI), 멕시코평화지수(MPI), 미국평화지수(USPI), 영국평화지수(UKPI) 등 국가별 평화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
- 또한, IEC는 긍정적인 평화(Positive Peace)를 지향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
- 긍정적인 평화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태도, 제도 및 구조로 정의되며 이러한 요소는 인간의 잠재력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는 다른 많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짐
- 긍정적 평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계 분석의 경험적 도출이라는 것이며, 역사적으로 주로 질적 평가로 이해되어 왔으며 주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됨



| RANK | COUNTRY        | SCORE | CHANGE | RANK | COUNTRY         | SCORE | CHANGE | RANK | COUNTRY                | SCORE | CHANGE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1    | Iceland        | 1.107 | ↔      | 29   | Spain           | 1.603 | ↑ 3    | 57   | Jordan                 | 1.849 | ↑ 15   |
| 2    | New Zealand    | 1.269 | ↔      | 30   | Taiwan          | 1.618 | ↑ 3    | 58   | Bosnia and Herzegovina | 1.85  | ↓ 1    |
| 3    | Ireland        | 1.288 | ↑ 3    | 31   | Romania         | 1.64  | ↓ 5    | 59   | Equatorial Guinea      | 1.863 | ↓ 6    |
| 4    | Denmark        | 1.296 | ↓ 1    | 32   | Italy           | 1.643 | ↑ 2    | 60   | United Arab Emirates   | 1.865 | ↑ 1    |
| 5    | Austria        | 1.3   | ↑ 2    | 33   | Estonia         | 1.662 | ↓ 5    | 61   | Panama                 | 1.876 | ↓ 1    |
| 6    | Portugal       | 1.301 | ↓ 1    | 34   | United Kingdom  | 1.667 | ↑ 2    | =62  | Cambodia               | 1.882 | ↑ 6    |
| 7    | Slovenia       | 1.316 | ↓ 3    | 35   | Latvia          | 1.673 | ↓ 4    | =62  | Moldova                | 1.882 | ↓ 6    |
| 8    | Czech Republic | 1.318 | ↑ 1    | 36   | North Macedonia | 1.704 | ↑ 1    | 64   | Oman                   | 1.889 | ↔      |
| 9    | Singapore      | 1.326 | ↑ 1    | 37   | Lithuania       | 1.724 | ↓ 2    | =65  | France                 | 1.895 | ↑ 7    |
| 10   | Japan          | 1.336 | ↑ 1    | 38   | Costa Rica      | 1.732 | ↑ 1    | =65  | Malawi                 | 1.895 | ↓ 2    |
| 11   | Switzerland    | 1.357 | ↑ 1    | 39   | Kuwait          | 1.739 | ↓ 1    | 67   | Cyprus                 | 1.903 | ↓ 2    |
| 12   | Canada         | 1.389 | ↓ 4    | 40   | Ghana           | 1.759 | ↑ 1    | 68   | Namibia                | 1.908 | ↓ 9    |
| 13   | Hungary        | 1.411 | ↑ 2    | 41   | Albania         | 1.761 | ↑ 3    | 69   | Argentina              | 1.911 | ↑ 5    |
| 14   | Finland        | 1.439 | ↓ 1    | 42   | Mongolia        | 1.775 | ↓ 2    | 70   | Senegal                | 1.916 | ↓ 12   |
| 15   | Croatia        | 1.44  | ↓ 1    | 43   | South Korea     | 1.779 | ↑ 8    | 71   | Kosovo                 | 1.938 | ↑ 8    |
| 16   | Germany        | 1.462 | ↑ 3    | 44   | Vietnam         | 1.786 | ↑ 6    | 72   | Rwanda                 | 1.945 | ↑ 9    |
| 17   | Norway         | 1.465 | ↔      | 45   | The Gambia      | 1.792 | ↑ 10   | 73   | Nepal                  | 1.947 | ↑ 7    |
| 18   | Malaysia       | 1.471 | ↑ 4    | 46   | Uruguay         | 1.795 | ↓ 4    | 74   | Morocco                | 1.969 | ↑ 9    |
| 19   | Bhutan         | 1.481 | ↓ 3    | 47   | Indonesia       | 1.8   | ↓ 2    | =75  | Gabon                  | 1.973 | ↑ 9    |
| 20   | Slovakia       | 1.499 | ↑ 5    | =48  | Botswana        | 1.801 | ↓ 5    | =75  | Liberia                | 1.973 | ↑ 1    |
| 21   | Netherlands    | 1.522 | ↑ 2    | =48  | Montenegro      | 1.801 | ↔      | 77   | Paraguay               | 1.976 | ↑ 8    |
| 22   | Belgium        | 1.526 | ↑ 2    | 50   | Sierra Leone    | 1.803 | ↑ 2    | 78   | Angola                 | 1.982 | ↑ 14   |
| 23   | Qatar          | 1.533 | ↑ 6    | 51   | Laos            | 1.809 | ↓ 5    | 79   | Ecuador                | 1.988 | ↑ 11   |
| 24   | Bulgaria       | 1.541 | ↑ 3    | 52   | Serbia          | 1.832 | ↓ 5    | 80   | Bolivia                | 1.989 | ↑ 14   |
| 25   | Poland         | 1.552 | ↓ 4    | 53   | Greece          | 1.838 | ↑ 14   | =81  | Dominican Republic     | 1.99  | ↓ 3    |
| 26   | Sweden         | 1.564 | ↓ 6    | 54   | Timor-Leste     | 1.839 | ↔      | =81  | Jamaica                | 1.99  | ↓ 4    |
| 27   | Australia      | 1.565 | ↓ 9    | 55   | Chile           | 1.84  | ↓ 6    | 83   | Armenia                | 1.992 | ↑ 3    |
| 28   | Mauritius      | 1.57  | ↑ 2    | 56   | Zambia          | 1.841 | ↑ 10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

[2022 Global Peace Index]

## □ 질의응답

- ‘경제와 평화’는 밀접하면서도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개념으로 보이는데 설립 당시 접근방식이나 이견은 없었는지?
  - 창업자 본인은 IT회사 2개를 창업, 성장시킨 후 아프리카 방문시 빈곤과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음. 당시 영국 업체에 의뢰하여 아프리카의 현재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큰 히팅(10억개 이상)을 보여 가능성을 알게 되었음
  -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병리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평화의 우선 조건부터 알아야 갈등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음.
-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적인 언론이나 매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·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이 있는지?
  - 좋은 보고서라 함은 한번 훑어보면 10분 안에 다이어그램 등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, 우리의 보고서가 그러하다고 생각함
  - 이를 홍보·확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음. 이에 다양한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도 병행하고 있음
- 연구 성과가 훌륭하다는 건 그만큼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다는 의미인데, 기관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비결은?
  - 호주 특성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. 또한, 호주는 아주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인재 발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.
  -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, 중요한 점은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매력적(attractive)이어야 하며,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(meaningful)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.
  - 또한, 호주뿐만 아니라 뉴욕 등 전 세계의 지역에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, 연구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(실제 담당자가 뉴욕 행사에서 발제)

〈경제평화연구소(IEC) 방문사진〉



<해외연구기관 방문>

## **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**

- 호주연구위원회의 경우 정부로부터 연구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, 기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, 연구윤리 관련하여 연구과제 확정 전에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윤리 위반여부 사전점검 및 동료심사(Peer Review) 제도가 인상적임.
- 매해 시행하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함
- 또한, 라이드 시의회의 경우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, 소통과 협력채널 구축, 성공적 다문화 정책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Best Practice로서의 연구사례가 제공되었고, 특히 세종시 이전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갈등사례 공유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
- 마지막으로, 경제평화연구소의 짧은 설립년도(2007)에 비해 보고서 인용지수, 각종 언론 및 사회관계망에 잦은 노출 등 매우 성공적인 연구성과 확산 사례를 확인하였는바, 이를 통해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역시 홍보역량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긍정적 인사이트를 제공받음
- 금번,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국내교육 및 해외 선진연구기관 현지방문 프로그램은 출연연 구성원들의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으며, 향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업무역량 제고 및 효율적 기관운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